

# “신행-포교-교육 자성해야”

### 꺾임 '종교실태조사'에 나타난 불교현실

## 경전읽기·정진 등한시...기복 치우쳐 개종 10명중 3명 불자...신도관리 시급

종교인 수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이번엔 발표된 꺾임조사연구소의 '한국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불교 신행과 포교, 교육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 주목되는 조사결과는 기도와 경전을 읽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아진 점이다. 불교인에게 기도(정진)는 수행, 자비행과 함께 중요한 신앙행위이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물음에 하루 1회 이상이라고 답한 불교인은 16.3%에 머물렀다. 반면 개인교인은 62.6%, 천주교인은 57.1%를 기록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불교인은 33.7%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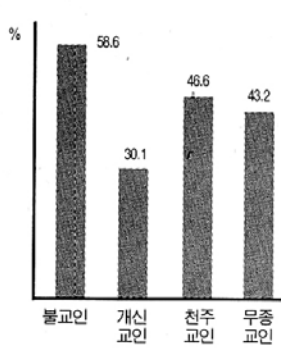
경전을 읽는 빈도에서도 다른 종교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전혀 경전을 읽지 않는다는 불자는 절반을 넘는 51.3%에 달했다. 1주일에 한번 이상 경전을 읽는 불자는 9.3%에 불과했다. 상보에 귀의한다면서도 결국은 기복에 치우치는 불교인의 신앙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불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작명 공합 명당 등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더 많이 동의하고 있어 이같은 풀이를 뒷받침한다. '이름과 운명이 상관 있다'는 것에 불교인은 58.6%로 개신교 30.1%, 천주교 46.6%보다 훨씬 높았다. 또 '궁합이 나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도 불교인은 개신교 18.8%, 천주교 27.7%보다 많은 55.1%를 나타냈다. 특히 선조의 묘지리와 자손의 번영에 대한 태도에서도 불교인은 72.9%로 개신교인(25.7%), 천주교인(41.0%), 무종교인(53.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종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개종 전에 믿었던 종교가 개신교였다는 사람이 58.4%, 불교 32.8%, 천주교 9.8%라고 응답했다. 개종경험자 가운데 10명중 3명은 불교에서 떠나 다른 종교를 선택한 꼴이다. 신도관리 및 조직화가 여전히 허술하며, 불교가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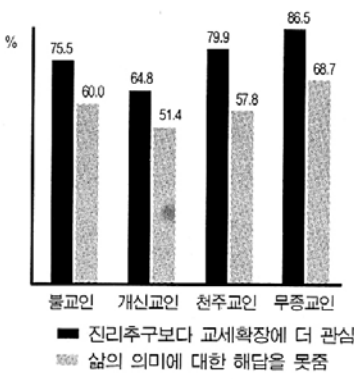
개종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개종 전에 믿었던 종교가 개신교였다는 사람이 58.4%, 불교 32.8%, 천주교 9.8%라고 응답했다. 개종경험자 가운데 10명중 3명은 불교에서 떠나 다른 종교를 선택한 꼴이다. 신도관리 및 조직화가 여전히 허술하며, 불교가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름과 운명 상관관계 종교인별 태도



한편 우리 국민들은 많은 사람이 종교 단체가 참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확장에 더 관심이 있고(불교인 75.5%, 개신교인 64.8%, 천주교인 79.9%, 무종교인 86.5%),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불교 60.0%, 개신교 51.4%, 천주교 57.8%, 무종교 68.7%)고 답했다.

#### 종교단체에 대한 평가



특히 종교단체에 대해 무종교인들이 종교인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이 주목된다. 이들이 종교에 귀의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swjung@buddhopia.com)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세미나는 종교인의 자성을 통해 위기 극복의 활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었다.

## “사회문제-소외계층에 관심”

### 종교인평화회의 '시민의식과 종교' 세미나

어려운 시대, '가없는 증생'과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 종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가 11~12일 이틀동안 서울 프레스센터와 일영 살롱유스호텔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종교'를 주제로 개최한 종교지도자 세미나는 그동안의 종교 역할에 대한 반성과 종교를 통한 위기극복의 활로를 찾는 진지한 토론의 자리로 평가된다.

정병조(동국대부총장)교수도 '바른 심성과 종교'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종교는 그동안 덩치를 키우는데는 성공했지만 성숙한 지적 훈련을 시키는데는 실패했다'는 자성론과 '바른 심성의 구원을 위한 노력, 대화'를 통한 종교간의 유대강화, 환경

일주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난의 현상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

문제들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함께 일깨웠다.

김복성(성주교)은 "현대의 종교는 '현

수도자의 상실'이라

비 '일시적인'의 정신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3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종교인들의 자성과 국민

정신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의지는 김몽은 신부의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자신의 고유 영역만 고집하고 자

표현 조혜인(서강대) 교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적 윤리 의식의 고취가 종교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물질만능주의의 배

격해 가는 사회의 흐름을 정화하고 선도하는 저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11일 저녁 일영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 세미나는 '종교교육의 현실과 미래' 바른심성을 위한 종교적 수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삼근목사는 "국난의 원인은 종교의 상실"이라 지적하고 "기복과 성장주의를 추구하고 물질만능 이기주의에 편승한 우리자

신이 반성해야 한다"고 종교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목사는 "아직까지는 '성업중'인 종교가 너와 나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

나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

를 통해 "경제난의 현상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

문제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

문제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

문제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

문제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

문제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

문제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

## 주지사선거 과열...폐지 여론수렴

### 조계종 산중총회법 공청회 왜 여나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정)가 이달 안으로 '산중총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교구본사 주지사선거가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중단 안팎의 비난 여론 때문이다.

교구본사 주지사 선거의 폐지 주장은 크게 두가지 요인으로 꼽힌다. 선거로 인해 문중 구성원간의 감정적 풀이 깊어진다. 우려가 그 첫번째 요인. 선거를 치른 일부 본사에서선 당선을 위해 본사 7직이나 말사 주지직이 거래되는 등 '물서기 현상'이 심화돼 문중내 파벌의식이 고조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도 문중간의 불협화음 기류가 산중에 남아 수행 풍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선거제도가 승자독식 체제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선하고 진취적인 산중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부에서 비방과 공금수수 등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차라리 선거제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실제 선거가 치러진 일부 본사 인근의 도시에서는 선거기간중 많은 스님들이 호텔을 출입해 지역 불자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

한 중진 스님은 "지역의 교위 공무원이 전화를 해 스님들의 선거 바람이 너무 거센것 아니냐며 자제를 당부해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스님은 "이대로 선거를 몇차례 치르고 나면 산중이 깨질지도 모른다"며 "선거로 인해 승가의 정신이 훼손되고 인간적 신뢰가 깨지는 것은 막을 길도 회복할 길도 없다"고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선거로 인해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란 지적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산중총회법'대로 산중의 상황에 따라 후대나 경선을 통해 후임 주지를 선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치열한 경선을 예상했던 불국사가 문중의 합의에 따라 후임 주지를 추대 한 것을 예로 든 한 스님은 "문중의 합의로 후임주지를 추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지적했다.

선거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첫 시행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씩 선거 관련 법조항을 보완해 나간다면 산중의 선거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며 "후대나 선거 어느쪽이든 문중을 결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함을 법적 보완을 통해 선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데도 많은 스님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중앙총회부의장 법등스님은 "대구 경북지역 본말사주지 합동 연수에서 설문해본 결과 1백31명의 응답자 중 76%가 선거제 폐지를 주장했다"며 "앞으로 두 번 더 열릴 지역별 본말사주지 합동연수에서도 설문을 실시, 공청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의 존폐와 폐지, 혹은 특별한 대안의 도출, 중앙총회가 공청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중도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해 내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불교출판계에 경사가 났다. 좋은 책 두권이 연달아 출간되면서 일간 신문을 크게 장식했다.

문화일보 5월28일자 북 리뷰 1면을 거의다 할애할 정도로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를 소개했다.

이 기사는 '20세기의 참조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불리는 보르헤스 사상의 뿌리가 불교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르헤스는 부처님의 깨달음 장엄과 윤회설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 "업이란 너 무도 정교한 정신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생의 어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인연의 끈을 짜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모두가 정신의 지양분으로 삼아야 할 인류의 숭고한 문화유산입니다." 기사는 보르헤스를 통해 본 불교의 핵심을 마치 강의하듯 정리했다. 96년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된 '보르헤스 불교강의'를 책으로 펴내는데 편역자 김흥근씨와 여시아문의 운재학부장은 1년 이상의 공을 들였다. 문화일보는 그 공을 한 눈에 알아 보았다.

문화일보 북 리뷰는 보름간격을 두고 (6월11일) <산에는 꽃이 피네>

를 화제의 책 머리에 올렸다. 이 책은 법정스님의 법문, 강연, 사석의 말씀 등을 시인 류시화씨가 정리한 산문집이다.

이 책은 류시화씨가 머리말에서 썼듯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 매 순간 자기를 점검하는 구도자적 자세에 주제가 집중되어 있다.

문화일보는 강원도 화진면이 살던 겨울 울막의 사진과 함께 그 울막에서의 스님 모습을 스크린처럼 그려냈다.

동아일보도 이틀날 갈피마다 지혜 가득한 '무소유·안빈의 풍요'를 출판면 절반을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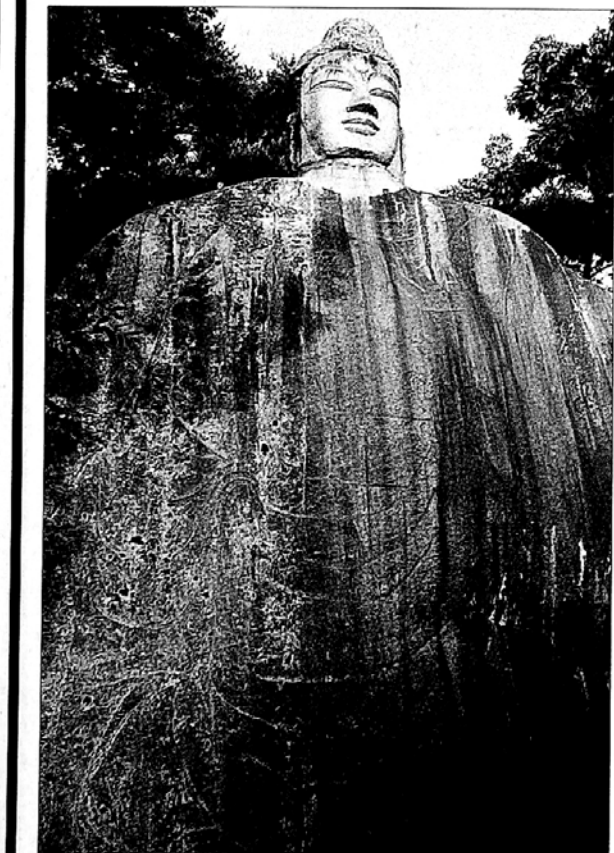
장점이 간결·단순한 이 책에도 여러사람이 공을 들였다. 말씀을 풀이 다듬은 류시화씨, 동쪽나라 대표 김형근씨, 판화가 이철수씨가 호흡을 함께했다.

두권의 좋은 책을 만드느라 애쓰는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또 좋은 책을 가려내 널리 읽히도록 보도해준 '신문'에 감사사를 드린다.

좋은 불서가 대중의 눈과 마음을 열어 쌓은 '전법의 탑'을 행여 주지사선거 총무원장 선거니 하여 허무는 일이 없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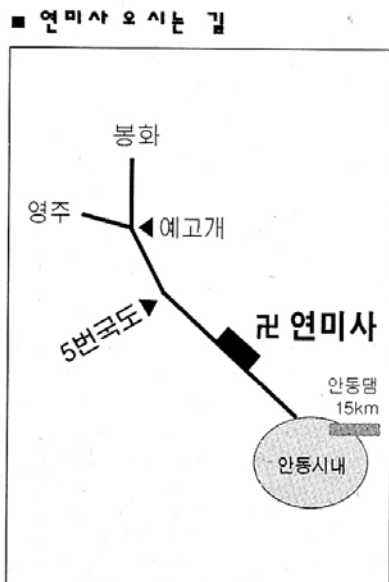
**목어**

**읽히는 책**



### 윤 5월 사찰순례 어디로 가십니까?

# “연미사로 결정했습니다!”



### 연미사 부처님 이야기

경북 안동시 제비원 연미사는 신라 선덕여왕때 창건된 고찰입니다.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5번국도변에 자리하고 있는 연미사의 거대한 부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자애로운 미소로 지나가는 중생들의 평온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연미사 부처님을 조성한 석공은 그 솜씨를 시샘한 스승이 사다리틀 치워버리자 한마리의 제비가 되어 날아갔다고 합니다. 또 임진왜란때 명나라의 장수 이여승이 재상 유성룡과 함께 연미사 앞을 지나갈 때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자 두 사람은 부처님께 예물을 올리고 지나갔다고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허공의 구름과 같은 탐심에 사로잡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다면 사람이 한마리의 제비가 되어 날아가듯 허망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과 佛法을 망각하고 사는 삶은 죄업만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도 결국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佛法을 받들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요.

윤5월을 맞아 연미사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고 참회와 발원의 시간을 가져 내일의 복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6 교구

제비원 연미사 주지 성도·신도회장 이천진화 합장

▲ 경북 안동시 제비원 연미사 석불(보물 제115호)은 12미터의 암벽에 몸체부분을 선각(線刻)하고 그 위에 머리부분을 따로 조각해 얹은 신라시대의 불상이다.